



나도 학교 가자

2012년 시작된 스쿨미 캠페인은 여아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의 시장에서 물을 팔던 페라 무스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라이베리아 봉카운티의 린다가 다니던 학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신축되었습니다. 이제 스쿨미 캠페인은 더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2019년까지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성별에 따른 교육 격차가 가장 큰 아프리카 4개국(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우간다)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 여아의 자립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여아들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포기해왔지만, 스쿨미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교사, 지역 사회의 변화와 지지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초등교육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과 수리력 등, 삶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스쿨미 캠페인이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아프리카 5만명의 아이, 2만 5천명의 학부모와 1천명의 교사가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school me



스쿨미 캠페인을 함께하는 3가지 방법

① 기부하기 ② 공유하기 ③ 제휴하기

자세한 내용보기 : 스쿨미 캠페인 사이트 (www.sc.or.kr/school.me)

캠페인 문의 : 02-6900-4400 | webmaster@sc.or.kr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Vision

우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Mission

우리는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 04080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Tel. 02-6900-4400 www.sc.or.kr



세이브더칠드런 여아 학교보내기 캠페인

왜 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거지요?
 왜 내 손에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 건가요?
 왜 아무도 내 생각을 물어보지 않나요?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학교에 갈 수 없는 100가지 이유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른이 되기 전,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결혼과 준비 안된 출산으로 어린 엄마가 되고 가사노동과 꿈이 없는 현실 속에 파묻히기 전에 학교에 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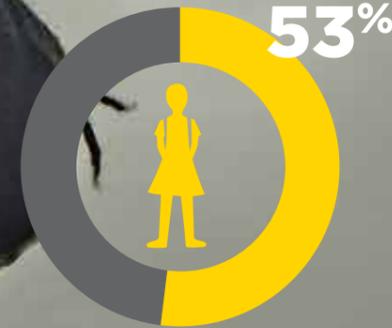
학교는 내게 성장할 시간을 줄 것이고 나는 그 곳에서 배우고 자라 건강한 여성으로서 더 많은 일과 꿈과 생활을 스스로 이뤄낼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고 투표도 하며 사회의 잘못된 편견이나 무모한 관습에도 용기 있게 도전할 거예요. 나와 함께 마을은 점점 변화할 테고, 우리들은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미래는 바로 학교에서 시작되며, 변화의 힘은 교육을 통해 자라날 거예요.

나도 학교 가자!
 school me!
 세이브더칠드런 여아 학교보내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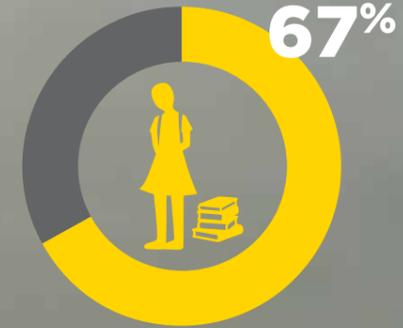
school me 캠페인은 빈곤, 사회적 약함, 편견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아프리카 여아들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여아들이 차별없이 학교에 가고,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질적인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아교육 현실은 지금 어떤가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령 아동 수 6,100만 명 이 중 여아 3,200만명(53%)

(GEM/UNESCO, 2014)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전 세계 성인 중 약 67%가 여성

(UNESCO, 2016)



41,000^명 /1day

조혼에 내몰리는 18세 이하 여아 하루 41,000명

(UNICEF, 201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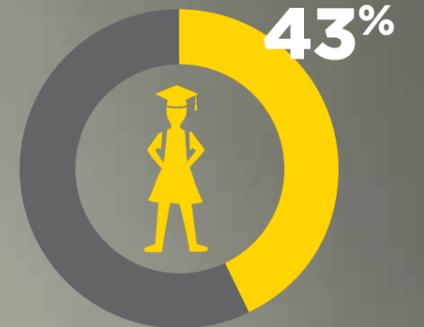
가사노동 아동 1,050만 명 중 75%가 여아

(ILO, 2013)



학교 못 가는 여아의 50%(900만 명)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

(UIS/UNESCO, 2016)



아프리카 여아의 43%만이 중등학교(lower secondary)에 진학

(UNESCO, 2012)

여아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REASON
1

학교가 없다

교실이 부족합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초등학교 무상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학교 시설 확충은 취학 아동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콩나물 시루 교실, 천막 교실, 3부제 수업으로 버텨보지만 학교 시설 확충 없이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쿨미 캠페인이 진행되는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우간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10년 넘게 지속된 분쟁으로 학교의 절반이 파괴되었고, 남아 있는 학교도 전쟁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총탄자국이 남아있는 벽면, 감옥을 수리해 만든 교실은 혼란 풍경입니다.



REASON
4

학비가 없다

식량 값이 오르고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빈곤 가정의 여아가 가장 먼저 학교 밖으로 내몰립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초등교육은 무상이지만 가난한 부모는 교복, 학용품 구입 등에 드는 적은 비용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여아들이 가게 빛을 갚기 위해 다른 집에 가사 노동자로 보내지거나, 심지어는 성매매를 강요 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가사노동자는 1천 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4분의 3이 여아입니다(ILO, 2013).



REASON
5

안전하지 않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여아에게는 가장 불안한 장소입니다. 학교 가는 길 또는 학교 안에서 성폭력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먼 통학거리,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 조명시설을 갖추지 못한 어두운 공간,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악습, 여교사의 부재 그리고 남교사의 자질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낳습니다.



REASON
2

교사가 없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없습니다. 교사라고 해도 보수가 너무 적어 다른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기 일쑤입니다. 제대로 된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부족해 실력도 자신감도 갖추지 못한 교사가 많습니다.

특히 여교사의 부족은 여아의 교육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여교사는 여아들을 학교 내 성폭력으로부터 지켜주고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스쿨미 캠페인이 진행되는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에서 여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12%에 불과합니다.



REASON
3

시간이 없다

분쟁과 HIV/AIDS, 이주 노동이 많은 지역의 여아들은 부모님의 빈 자리를 메우느라 바쁩니다. 특히,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는 오랜 내전 기간 중에 가족과 헤어지거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여아들이 18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임마가 됩니다. 한창 공부를 하고 꿈을 키워야 할 시기에 어른들을 대신해 가사를 돌보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REASON
6

남편과 아이가 있다

많은 여아들이 제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강요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41,000여 명의 18세 이하 여아들이 강제로 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혼은 이른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집니다(UNICEF, 201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아의 절반이 20세가 되기 전에 첫 출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조사 아동의 61%가 임신한 여아를 적어도 1명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약 5%만이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Plan International, 2012).



REASON
7

공부해서 뭐하냐고 한다

스쿨미 캠페인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여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어도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중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거나,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면 교육은 결국 쓸모 없다는 어른들의 회의와 의구심이 아이를 학교 대신 일터로 내몰습니다.

여아의 배울 권리보다는 교육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고 방식 때문에 빈곤가정의 여아는 부모의 지지를 받기가 더 어렵고, 역할 모델도 거의 없습니다.



스쿨미 캠페인은 아프리카 여아의 자존감 발달과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끕니다.

POINT
1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아프리카 여아를 지원합니다.



빈곤, 사회적 약함, 편견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아프리카 여아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 시설은 물론 수준 높은 교사 양성 및 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POINT
2

교육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4개국에서 변화를 만듭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여아들이 많은 아프리카 4개국(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우간다)을 중심으로, 아동, 학부모, 교사, 지역 사회와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POINT
3

현지 환경과 아동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아의 교육받을 권리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여아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집중 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 아동 보호 사업과 근본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POINT
4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 변화를 이루는 캠페인입니다.



지속적인 교육만이 여아의 자립과 지역 사회의 인식개선을 이룹니다. 스쿨미 캠페인은 단발성 지원을 지양하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나요?



1. 빈곤을 줄일 수 있다.

유네스코는 개발도상국의 모든 아이들이 읽고 쓰는 것을 익히고 학교를 졸업한다면 전 세계에서 1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UNESCO, 2010). 이는 전 세계 빈곤 인구의 10분이 1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동이 한 학년을 더 다니면 성인기 소득이 평균 1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WB, 2002).



2. 영유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여아교육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아교육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1백 8십만 명 5세 미만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UNESCO, 20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여아가 중등교육을 받게 되면 이 지역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41%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UNESCO, 2011).



3. 결혼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한다.

조혼과 높은 출산율은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가난 할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여아는 조혼에 내몰리기 쉽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는 여아는 하루에 41,000여 명에 이릅니다. 여아교육은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춰주고,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강화시켜 줍니다.



4. 성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된다.

여아교육은 조혼, 가사 노동, 성폭력과 인신매매 같은 사회적 약함과 범죄에 대해 여성 스스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마을 지역주민위원회에서부터 학부모회까지, 또 지역 공무원에서부터 의회까지, 사회 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같은 변화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불평등을 줄일 수 기회가 됩니다.



5.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한다

교육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하는 근본적 방법입니다. 특히 여아교육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 세계 빈곤 인구의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빈곤의 상관성을 말해줍니다 (UNESCO, 2009). 교육은 여아에게 보다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장기적 해결책입니다.



CASE



"이제는 창문 밖이 아닌 교실에서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페라 무스 (10), 시에라리온



1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 사는 페라 무스는 이모를 도와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 팝니다.
2, 3 세이브더칠드런 스쿨미 캠페인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 페라 무스. 예전의 무표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CONDITION

시에라리온은 오랜 내전으로 사회·경제 체제가 무너졌고, 현재까지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지닌 상태입니다. 전국 1,270여개의 학교 건물이 붕괴되거나 타격을 입었으며, 피난으로 인해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인구가 총 인구의 57%에 달하며, 인구 550만명 중 50%가 아동입니다. 아동이 학교를 다니는 대신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CHANGE

스쿨미 캠페인은 2012년부터 여아교육에 중점을 둔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정부와 함께 활동합니다. 2012년부터 진행된 3개년 프로그램을 통해 75개 초등학교, 10개 유치원을 지원하며 6만 2천 여명의 아동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2개 지역 40개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여아교육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행동변화 및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학습환경 개선, 교사 지원 등을 펼칩니다.

아직도 아프리카의 많은 여아들이 가난과 편견, 차별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시에라리온은 독립 이후 40년의 시간 동안 독재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전쟁이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오랜 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파탄해지고, 농업 등을 포함한 산업 기반이 붕괴되었으며, 내전 기간 동안 25만 명 가량의 여성들이 참혹한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시에라리온의 15세 미만의 소녀들의 임신율은 8명 중 1명이고,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4명 중 1명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시에라리온의 여아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선생님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일해야 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먼 등하곳길이 너무 위험해서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크루베이 마을에 사는 페라 무스(10)에게는 작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 대신 이모와 함께 살아 온 페라 무스는 이모를 도와 동네 수도에서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19kg의 몸으로 5kg의 물을 이고 나르는 페라 무스는 글이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물을 팔러 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또래 아이를 보면 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교실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훑쳐보며 수업 내용을 한마디라도 들어보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페라 무스가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으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교실 안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모습에서는 예전의 무표정하고 어두웠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 친척을 따라 법원에 가본 이후론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제 2, 제 3의 페라 무스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 4개국에서 스쿨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CASE



"30년 뒤, 나는 대통령이 될거야! 대통령이 되어 식량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을거야!"

Linda Clar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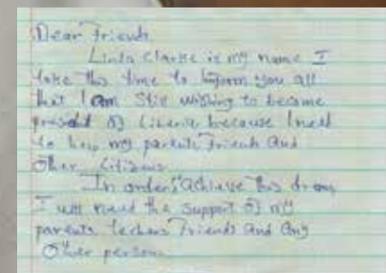
린다 클라크, 제니플레타 공립학교 5학년, 라이베리아

CONDITION

라이베리아는 14년간의 내전으로 국가 인프라는 무너졌으며, 정부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쟁 기간 중 학교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 51%의 학교만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아 이슈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낮은 인식으로 여성의 교육활동은 저해되었고, 원하지 않는 조혼과 10대 임신, 아동 노동의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HANGE

2012년 시작한 라이베리아 스쿨미 캠페인은 에볼라 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아동,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학교를 지켰습니다. 학교 4곳과 지원센터 3곳을 운영하고 1만 4천 여명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교 밖 아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220여 명의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10개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여아교육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행동변화 및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학습환경 개선, 교사 지원 등을 이어갑니다.



- 2014년,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학교 벽은 무너졌고, 책걸상 같은 기본적인 기자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입니다.
- 린다의 시절지. 중학생이 된 린다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 린다의 편지. 린다가 한국 후원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대통령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과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진실 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지닌 라이베리아, 그곳에서 우리는 여아교육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2014년, 14년 간의 내전이 있은 후 10년... 전쟁 중 기초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스쿨미 캠페인이 진행되던 봉 카운티 '제니플레타 공립학교'도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학교 벽, 낡고 망가진 책걸상, 교실의 창문과 문도 사라져 아이들은 소음과 먼지 속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학년 교실에서 만났던 유일한 여학생 린다. 여학생들은 부모를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거나, 원치 않는 조혼으로 엄마가 되어야 하기에, 학업을 계속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린다는 우수한 성적으로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식량가격을 낮춰 학교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년 뒤 우리는 린다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중등학교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꿈도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계속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린다는 자신의 꿈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린다의 내일의 희망이자, 교육의 증거입니다. 교육을 통해 여아의 삶이 바뀌고,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스쿨미 캠페인은 아프리카 여아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8가지 맞춤형 활동을 진행합니다.

1. 지역 사회 주도적 활동 지원



지역 주민들이 여아 교육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아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 교사,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행동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주민이 여아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스스로 나서도록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낸 해결책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정부와 함께 진척 상황을 파악합니다.

2. 지역 남성들의 인식 전환 활동



지역 남성들이 여아 교육의 든든한 지지자로 변화합니다.

조혼, 이른 임신, 여아 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 등 여아를 배움에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남성의 지지와 참여 없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여아교육을 지원하는 남성 '서포터즈'를 찾아내고 양성합니다. 이들은 영상, 라디오, 공개 토론회 등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여아교육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널리 퍼뜨립니다. 여아 교육을 가로막는 문제점의 일부였던 남성이 변화를 가져오고 확산하는 긍정적 주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3. 빈곤 가정 생계활동 지원



더 이상 가난을 이유로 여아들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빈곤 가정의 여아는 일찍부터 일터로 내몰리기 쉽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인 반면, 교육을 포기하고 얻는 약간의 소득은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여아가 배움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빈곤 가정의 생계 활동을 지원합니다. 가게 소득에 보탬이 되는 소액대출 및 소규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4. 안전한 환경 조성



여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빈곤 국가의 여아에게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이 너무 멀어 등하곳길에 동물로부터의 공격, 교통사고,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스쿨미 학교의 아이들은 또래 친구, 어머니들과 함께 주변 지도를 그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낸 해결책 실행을 지원합니다. 학교, 지역사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 특히 여아 대상 폭력에 대비한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5. 집중 문해·수리 교육 프로그램



배우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교에 다녀도 글과 숫자를 모른다면 이는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읽고, 쓰고, 셈하는 학습 성취를 높이기 위해 '집중 문해교육(Literacy Boost)' 과 '집중 수리교육(Numeracy Boost)'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배움은 교실 안팎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교수법 향상, 학습문고 마련을 지원하고, 마을에서는 독서 캠프를 열어 배움이 어디서든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6. 교사지원



교사는 여아를 보호해주고, 역할 모델도 됩니다.

어떠한 좋은 교육 시설도 훌륭한 교사보다 나올 수 없습니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친화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여교사는 여학생의 학업 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녀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여교사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아의 학교 적응력을 높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줄 여교사를 양성합니다.

7. 주체적 아동클럽 활동 지원



아동의 주체적 활동을 유도하여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스스로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아동클럽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연습과 학습의 공간입니다. 클럽 활동을 통해 학교 내 폭력을 직접 중재하고, 조혼이나 아동노동처럼 배움을 가로막는 사회적 악습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직접 펼치기도 합니다. 아동 클럽을 통해 진행되는 성교육을 통해 남아와 여아가 스스로를, 또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아동클럽 대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8. 필수 학용품 지원



학교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을 지원합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초등 교육은 무상이지만, 매 학기 교재, 필기구, 노트와 같은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아동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분필, 칠판 지우개, 도형자와 같은 교구가 부족하면, 교사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용품과 교구를 지원합니다.



스쿨미 캠페인 참여하기

ACTION 1

변화를 이끄는 정기후원

교육사업은 장기적으로 아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원자님의 정기후원금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열악한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 여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정기 후원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후원 www.sc.or.kr/school.me
- ② 후원 전화 Tel. 02-6900-4400

ACTION 2

교육의 기회를 주는 일시후원

아프리카 여아들이 빼앗긴 교육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함께해주세요.

일시 후원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후원 www.sc.or.kr/school.me
- ② 전화 후원 (2,000원) ARS 060-700-1233
- ③ 문자 후원 (5,000원) #9595 로 문자 선물

ACTION 3

기업, 브랜드 파트너십 문의

기업 사회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담당자 또는 공익연계마케팅(Cause Marketing)을 통해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사회적 공익도 실천하기를 바라는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를 기다립니다. 스쿨미 캠페인을 통해 새롭고 효과적인 공익 연계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① 전화 문의 Tel. 02-6900-4400
- ② email 문의 webmaster@sc.or.kr

ACTION 4

캠페인 더 알아보기

스쿨미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이들의 생생한 소식을 확인하세요.

